

해양수산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월 1회 정기 휴무

- 4. 24(금)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운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 24(금)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월 1회)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여건 조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약 2.5개월 간 운영 결과 평균 1/3 가량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그 외 직원은 청사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지역 업체에서 모든 식자재를 납품받고, 식당 운영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하는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구내식당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번에 구내식당 휴무 운영을 결정하게 되었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황성오 (051-773-5050)
		담당자	사무관	서민재 (051-773-5060)